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5)

夫諸佛諸佛 莊嚴寂滅宮
(부제불제불이 정엄적멸궁은)
於多劫海 捨欲苦行
(어다겁해에 사욕고행이요)
衆生衆生 輪迴火宅門
(중생중생이 윤회화택문은)
於無量世 貪慾不捨
(어무량세에 탐욕불사니라)
無功天堂 小住至者 三毒煩惱 爲自家財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지가 재요)
無誘惡道 多往入者 四蛇五欲 爲妄心寶
(무유악도에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 심보니라)

着柔守護 命必有終
(착유수호해도 명필유종이니라)
높은 산 바위 솟은 곳은 지혜로운 이 살 곳
이요 푸른 숲 깊은 계곡은 수행자들이 깃들 곳
이라.
배고프면 나무열매로 주린 참자 달래고 목마
르면 흐르는 물마셔 목타는 마음 살 것이니 맛
있는 음식 먹여 예지중지 길러보아도 이 풀은
끝내 무너지 것이며 부드럽고 좋은 옷 입혀 지
키고 보호해도 이 목숨 반드시 끝나고 마는
것.

무릇 모든 부처님이 번뇌망상의 한 티끌도
없는 해탈경지를 정엄하심은 억겁고해에 욕심
여의고 인욕고행하심이요 많고 많은 중생이
삼계화락을 헤어나지 못하고 윤회함은 한량없
는 세월동안 탐욕을 여의지 못한 까닭이다.
막는 것 없는 천당에 왕성한 이가 적은 것
은 중생이 탐·진·치 삼독번뇌로 제집 재산
을 삼음이요.
유혹하는 이 없는 악도에 태어나는 사람 많
은 것은 사대욕심과 온갖 욕망으로 망녕되어
마음 보배를 삼는 때문이다.

助壽樂穴 爲念佛堂 哀鳴鶴鳴 爲歡心友
(조수양혈도 위염불당하고 애맹장조로 위한
심우니라)
拜膝 如冰 無戀火心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련화심하고)
餓腸 如切 無求食念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라)
忽至百年 云何不學
(홀지백년이어늘 윤회불학하며)
一生 幾何 不修放逸
(일생이 기하인데 불수방일일고)

메아리 울리는 바위동굴로 엄불법당 도량상
고 슬피우는 기러기 울음으로 마음 기쁜 벗을

중생이 윤회함은 탐욕 여의지 못한 탓 입산수도 못할망정 선행은 외면 말라

(인수불귀산수도리요만 이위부진은 애욕
소정이니라)
然而不歸山 藪修心 隨自身力 不捨善行
(연이불귀산수수심이나 수자신력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自樂 能捨 信敬如聖 難行能行 尊重如佛
(자락을 능사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
하면 존중여불이니라)
慳貪食於物 是棄善業
(간탐어물은 시미권속이요)
慈悲布施 是法王子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삼아 예불 참선에 무엇이 열대라도 불기운 그
리지 않고 주린 배 참자가 굶어지는듯 해도 먹
거리 찾을 생각 내지 말지니 논 잡박새에 백년
세월 가는 데 어찌 배우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얼마나 되기에 닦지 않고 방일하겠는가.

누군들 산에 들어가 도 닦고자 하지 않으리
요만 그리하지 못할은 애욕에 얽힌 때문이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 마음 닦지 못할지라
도 자신의 힘이 닿는 데로 선행하기를 외면하
지 말 것이다.
세간 파락을 능히 버린다면 마치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고 육바라밀의 하기 어려운
행을 하면 부처님처럼 존중받게 된다.
재물이나 탐하는것은 곧 미귀의 권속이요
자비보시는 곧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離心中愛 是名沙門 不戀世俗 是名出家
(이심중애를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
출가니라)
行者羅網 狗被像皮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道人戀懷 蟻入鼠宮
(도인련회는 위입사궁이니라)
雖有才智 居居家者 諸佛 是人 悲憂心
(수유재지나 거유가자는 재불이 시인에 생비
우심하고)
說無道行 由山座者 衆聖 是人 生歡喜心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에 생
환희심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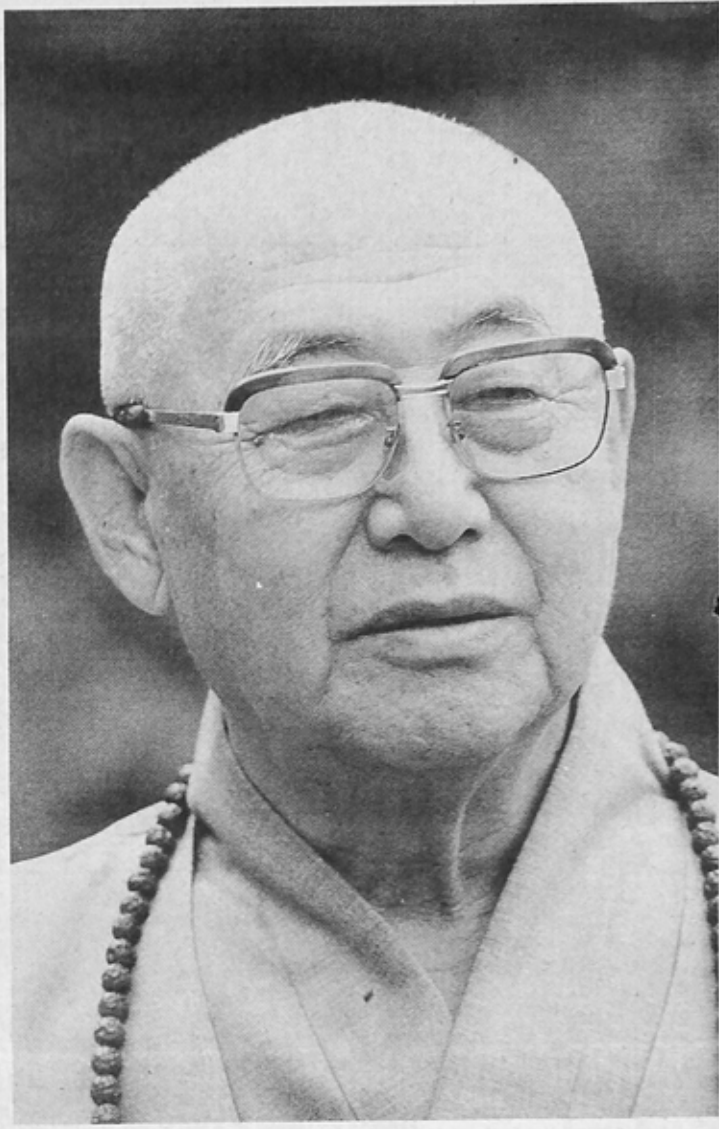
高寮我巖 智人所居 碧松深谷 行者所棲
(고악이암은 지인소거요 벽송심곡은 행자소
서니라)
前殖木果 慰其前渴 渴飲流水 惠其渴情
(기손목과하여 위기전갈하고 갈음유수하여
식기갈정이니라)
美甘愛養 此身 定壞
(미감애양하여도 차신은 정괴요)

마음 가운데 갈애·애착 여인 이를 사문이라
이탈하고 세속 그리움 떨친 것을 출가라 한다.
수행자가 애욕·세속의 그물에 얽힌다면 그
것은 개가 꼬끼리 가족을 뛰집어 쓴 꼴이요 도
닥는 이가 세속의 연정 파우를 마음에 품는다
면 그것은 고슴도치가 귀구멍을 찾아든 격이
다.(들어가기는 쉬워도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뜻)
비록 재능과 슬기 있어도 속가에 사는 이,
재물에게 그들을 슬피 여기시고 실사 도를 닦
지 않더라도 산사에서 사는 이, 못 성현이 그
들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龍眼

지상 법석

“믿음은 선근·공덕 기르는 근원

종교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신심이 그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암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근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믿음은 온갖 선근을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아서 일생을 방황



덕 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하며 삽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의주장과 주권이 확실하여 어떠한 난관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심에 의하여 더욱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불성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을 불안, 혼란, 방종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인간성 부재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무엇이 좋기듯 방향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금전만 눈에 보이고 기계문명에 밀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교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명과 탐욕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들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믿음이란 명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고 이해하기는 하고 믿지 않는다면 사뭇 소견만 더욱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잘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근본원인인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따릅니다. 권력과 금력과 기계와 과학의 힘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역시 불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는 것도 불교의 진리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가 닦고 행하여야 할 덕목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계행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계행은 믿음을 토대로 하여 복을 짓고 선근을 기르는데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방편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계행 가운데에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행이라 할 것 같으면 오계와 십선계를 들 수 있습니다. 제 1계인 불살생계를 범하면 지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2계인 불무도계를 범하면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3계인 불사음계를 범하면 청정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4계인 불망어계를 범하면 진실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5계인 불유구계를 범하면 지혜의 종자를 끊는 일이 되므로 내면의 정신을 길러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선계는 첫째 불살생, 둘째 불무도

담 화 문

공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전종도에게 드리는 글

전 종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종단은 정법구원을 위한 종단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종도와 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회의에 대해 종도와 국민들은 한국불교가 자기위상을 확립하는 전무후무한 기회라고 평가해 왔고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종도들의 성원속에 추진해왔던 종단의 개혁불사가 이제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현재는 개혁의 맥을 계속 이어가갈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개혁회의가 출범당시 종도들에게 약속했던 일제속에 개혁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 전종도들의 여망속에 개정된 종헌 중점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8·15해방이후 정화불사와 함께 최초로 진행하여온 개혁불사를 계승하여 나가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또한 불교가 이 사회와 민족을 계도해나가기 위한 영집기단을 쌓아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소수의 종도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흑색 유인물을 살포하여 공명선거를 저해 하는 반승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각종 투서와 흑색유인물이 얼마나 세인들의 조소를 자아내고 승가위상을 실추시켜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도들에게 승가에 대한 깊은 좌절과 실망을 안겨왔던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과 악폐가 근절되지 못하고 또 다시 재연되고 있음에 깊은 충격을 금할길 없습니다.

진정 출가라 함은 세속의 명리와 공명을 다 버리고 우주의 질리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미망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지 못한다면 세속의 중생들과 다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스스로의 허물을 탓할지언정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속임말로 싸움을 시키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서로를 존경함으로써 승가의 화합을 이루라는 고구정명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종단은 이러한 악습과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더이상 개혁에 대한 희망도 종단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청정한 분이 종단을 이끌어도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악습과 악폐가 난무하던 과거로 돌아가 끝내는 세인들의 조소속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인은 새롭게 태어나는 종단이 되기 위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 종단개혁의 완성 과 승가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가의 화합을 해치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지극히 소수의 종도들에게 고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여 공명 선거를 호리하는 흑색 유인물을 살포하거나 기타 반승가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종헌을 위시한 승려법, 선관 위법 등 승려의 품위유지에 관한 제반 법률로써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종단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이번 선거가 개혁의 대의속에 공명하게 진행되어 화합된 면모로 다시 태어나는 승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기 2538년 1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탄성 합장